

http://dx.doi.org/10.17703/JCCT.2022.8.2.91

JCCT 2022-3-13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

Personal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dental hygiene students

신명숙*, 황지민**

Myong Suk Shin*, Ji Min Hwang**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인성은 3.42점, 대인관계는 3.46점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인성과 대인관계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p < .001$). 임상실습 경험이 있을수록 대인관계 중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대한 점수는 낮았다. 인성의 하위영역 중 도덕성과 사회성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 = .674$), 대인관계에서는 친구관계와 교수관계가 높은 상관관계($r = .606$)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치과의료 현장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과 대인관계 함양에 대해 대학에서도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성, 대인관계, 치위생과 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egree of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 2021 to June 30,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personality was 3.42 poi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3.46 points. In general,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subdomains i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p < .05$, $p < .001$). The more experience they had in clinical practice, the lower their scores for friendship and professorship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sub-domains of personality, morality and sociality were analyzed as having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r = .674$), an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and professors was analyzed as high ($r = .606$). Therefore, for the holistic growth of dental hygiene students as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nd their adaptation to the dental care field, a long-term strategy and continuous educational approach are needed at the university for cultivating characte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ch are the basics.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related to the duties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developed and methods to be applied should be sought.

Key words :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ntal Hygiene Students

*정희원,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월 21일, 수정완료일: 2022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21, 2022 / Revised: March 1, 2022

Accepted: March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myc0501@bscu.ac.kr

Dep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Korea

I. 서론

인성은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내포되어 있다[1].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지만[2] 인성은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최근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인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5년에는 법 제정으로 까지 이어졌다. 인성교육법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성교육은 지식 중심의 도덕, 윤리 교육에 집중되어 생활의 실천으로 잇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감정과 행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성 접근이 필요하다[3].

대학생 시기는 이전까지 부모와 교사에게 의존하며 다소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청소년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학업 외에도 장기적 인생계획을 설정하고 다양한 고민과 경험을 통하여 독립된 한 명의 성인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라 하겠다[4]. 특히나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학생들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대한 학습량과 학기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임상실습,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성격의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대인관계 형성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5].

원만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형성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중요하지만 치위생과 학생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치과계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대인관계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6]. 대인관계 능력은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7].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를 개척하고, 발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임상현장과 산업체에서도 인성적 자질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4]. 하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현실이며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대학생활은 물론 향후 임상실습과 치과의료 현장 적응 향상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 자료는 경기지역과 충청지역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 추출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였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하였다. 표본 크기의 근거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상관관계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 효과크기 0.3을 기준으로 134명 이상이 산출된 것이다. 최종 표본은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인성교육 경험 유무, 대인관계 만족도, 전공 및 대학생활 만족도, 임상실습 경험 유무 총 7문항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있는 만족도는 5점을 매우 만족, 1점을 매우 불만족으로 처리하였다.

인성에 대한 변수는 지 등[8]이 개발한 40문항을 손과 정[9]이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덕성(10문항), 정체성(7문항), 사회성(7문항)으로 3개의 하부영역과 총 24문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4점 만점의 Likert형 4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0.931이었다.

대인관계 변수는 전 등[1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관계(7문항), 친구관계(5문항), 교수관계(6문항)으로 3개의 하부영역과 총 18문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4점 만점의 Likert형 4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0.934이었다.

표 1. 인성과 대인관계

Table 1.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변수	M±SD
인성	3.42±.354
도덕성	3.60±.373
정체성	3.17±.470
사회성	3.41±.416
대인관계	3.46±.486
가족관계	3.28±.557
친구관계	3.54±.605
교수관계	3.59±.582

3. 자료분석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과 대인관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과 대인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Levene 통계량을 사용하여 등분산 검정을 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인성과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시행하였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Table 2. Person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N(%)	도덕성			정체성			사회성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성별	남	5(2.5)	3.52±.502	.608		3.25±.421	.686		3.42±.473	.920	
	여	196(97.5)	3.60±.371			3.17±.472			3.40±.416		
학년	1학년	92(45.8)	3.58±.386	.332	n/a	3.20±.440	.396	n/a	3.40±.421	.462	n/a
	2학년	54(26.9)	3.63±.346			3.14±.586			3.45±.400		
	3학년	55(27.4)	3.60±.382			3.14±.391			3.38±.422		
인성교육 경험유무	있다	159(79.1)	3.58±.379	-1.439		3.17±.489	-.064		3.42±.411	.747	
	없다	42(20.9)	3.67±.346			3.17±.398			3.36±.436		
대인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3(1.5)	3.63±.351	10.219***	n/a	3.57±.515	13.559***	b<e<a	3.33±.577	3.596**	n/a
	불만족	5(2.5)	3.34±.378			2.68±.409			3.22±.372		
	보통	40(19.9)	3.35±.372			2.86±.478			3.26±.402		
	만족	97(48.3)	3.61±.361			3.15±.382			3.39±.407		
	매우 만족	56(27.9)	3.79±.281			3.44±.438			3.56±.401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5(2.5)	3.52±.342	5.274***	b<e	2.97±.965	5.741***	b<d,e	3.25±.433	1.778	n/a
	불만족	8(4.0)	3.28±.356			2.66±.304			3.14±.576		
	보통	58(28.9)	3.50±.402			3.04±.436			3.36±.388		
	만족	98(48.8)	3.63±.360			3.23±.444			3.42±.417		
	매우 만족	32(15.9)	3.79±.257			3.35±.413			3.52±.396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6(3.0)	3.55±.314	6.072***	b<e	2.97±.854	6.353***	n/a	3.23±.448	2.936*	n/a
	불만족	6(3.0)	3.26±.436			2.92±.637			3.11±.366		
	보통	73(36.3)	3.49±.383			3.01±.457			3.35±.378		
	만족	89(44.3)	3.66±.352			3.25±.396			3.42±.429		
	매우 만족	27(13.4)	3.80±.265			3.44±.426			3.60±.416		
임상실습 경험유무	있다	64(31.8)	3.59±.367	-.331		3.13±.411	-.751		3.37±.423	-.712	
	없다	137(68.2)	3.61±.377			3.18±.496			3.42±.414		

Data was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statist

p<0.05, *p<0.01, *p<0.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Table 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특성	N(%)	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수관계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M±SD	t/F	Scheffe	
성별	남	5(2.5)	2.57±.814	-2.943**		3.56±.876	.047		3.93±.149	4.357**	
	여	196(97.5)	3.30±.540			3.54±.600			3.59±.587		
학년	1학년 ^a	92(45.8)	3.36±.524	1.999	n/a	3.69±.509	8.251***	c<b,a	3.77±.403	8.479***	c,b<a
	2학년 ^b	54(26.9)	3.20±.620			3.56±.655			3.49±.586		
	3학년 ^c	55(27.4)	3.21±.557			3.28±.628			3.41±.739		
인성교육 경험유무	있다	159(79.1)	3.24±.566	.063		3.53±.586	.565		3.59±.593	.688	
	없다	42(20.9)	3.42±.503			3.59±.679			3.63±.545		
대인관계 만족도	매우 불만족 ^a	3(1.5)	3.57±.742	7.043***	b<e,a	3.66±.577	16.453***	b<c,d,a,e	4.00±.000	8.452***	b<d,e,a
	불만족 ^b	5(2.5)	2.65±.490			2.16±.328			2.66±.311		
	보통 ^c	40(19.9)	3.03±.639			3.23±.719			3.42±.663		
	만족 ^d	97(48.3)	3.27±.468			3.57±.545			3.55±.590		
	매우 만족 ^e	56(27.9)	3.51±.528			3.83±.305			3.85±.353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a	5(2.5)	2.97±1.007	4.982**	n/a	3.60±.547	.883	n/a	3.80±.447	5.803***	n/a
	불만족 ^b	8(4.0)	3.07±.264			3.35±.563			3.31±.466		
	보통 ^c	58(28.9)	3.06±.515			3.45±.667			3.33±.773		
	만족 ^d	98(48.8)	3.38±.557			3.57±.559			3.69±.444		
	매우 만족 ^e	32(15.9)	3.46±.465			3.65±.645			3.81±.406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a	6(3.0)	3.11±.730	6.655***	b<d,e	3.56±.496	4.025**	b<a,d,e	3.30±.832	4.806**	b<e
	불만족 ^b	6(3.0)	2.69±.437			2.83±.662			2.97±.600		
	보통 ^c	73(36.3)	3.11±.508			3.46±.659			3.49±.567		
	만족 ^d	89(44.3)	3.38±.547			3.57±.580			3.66±.577		
	매우 만족 ^e	27(13.4)	3.57±.487			3.81±.367			3.87±.395		
임상실습 경험 유무	있다	64(31.8)	3.18±.562	-1.1783		3.26±.692	-4.212***		3.39±.743	-3.024**	
	없다	137(68.2)	3.33±.551			3.67±.514			3.69±.462		

Data was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statist
p<0.05, *p<0.01, ****p<0.001

III. 결 과

1. 인성과 대인관계

인성은 3.42, 대인관계는 3.46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하위영역 중 도덕성이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의 하위영역은 교수관계가 3.59점으로 가장 높게, 가족관계가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인성의 모든 하위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와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도덕성과 정체성, 사회성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사회성이 3.42, 인성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사회성이 3.36으로 다소 낮았다(표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일반적 특성 중 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대한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대인관계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을수록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대한 점수는 낮았다.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4. 인성과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

인성의 하위영역 중 도덕성과 사회성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674$)를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하위영역 중 친구관계와 교수관계가 그 다음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r=.606$)를 보였다. 인성의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가족관계가 가장 낮은 양의 상관관계($r=.086$)를 보였다(표 4).

표 4. 인성과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도덕성	정체성	사회성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수 관계
도덕성	1					
정체성	.557**	1				
사회성	.674**	.552**	1			
가족 관계	.360**	.336**	.086	1		
친구 관계	.360**	.248**	.194*	.584**	1	
교수 관계	.369**	.317**	.236*	.492**	.606**	1

Data was analysed by pearson correlation statistics.
 * $p<0.01$, ** $p<0.001$

IV. 토의 및 추정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여 대학생활은 물론 향후 임상실습과 치과의료 현장 적응 향상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의 인재 양성 제고를 위해 시도하였다.

최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 교육은 저마다의 특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11], 무엇보다 가장 기본소양이 되는 인성은 전문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 정도를 측정된 결과, 인성은 3.42점의 인성 수준을 보였다. 일부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인성의 정도는 3.70점[12], 보건계열 대학생인 경우 3.49점[13],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 3.50점[14]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인성 수준을 보였으나,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인성은 본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사의 핵심역량 7개를 학부 과정에서 갖추도록 제시하여 보건의 계열보다는 교육시스템으로 노출되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위 영역의 인성 수준은 도덕성이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성 3.41점, 정체성이 3.1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실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순으로[9], 대학생들도 규칙이나 관습 등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봉사 및 협력과 같은 사회성, 그리고 자기 이해, 자기 존중(효능) 등의 정체성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대학생 때부터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치위생과에 다니는 일부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3.46점으로 긍정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이 전문화되면서 치과위생사에 필요한 능력이 예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 경영 등으로 폭넓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15]에서 대인관계 기술은 치과위생사의 기본핵심역량이라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치과위생사가 지녀야 할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역량을 대인관계로 꼽았으며, 대인관계 역량이 3.59점으로 나타나[16][17],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대인관계 하위영역 중 교수관계 3.59점, 친구관계 3.54점보다는 가족관계 3.2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단계로 가족관계보다는 친구와 교수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에서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든 하위영역인 도덕성, 정체성, 사회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Jun과 Noh[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인성의 행동 영역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성과는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며, 대학에서도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을수록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대한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른 대인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은 치과 위생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현장실습을 미리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 학점 관리 등 치위생과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임상실습의 경험이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Je 등[19] 연구에서 현장실습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적응과 대인관계 유능성이라고 하였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이 현장실습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기술에 대한 학습이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치위생과 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는 인성의 하위영역 중 도덕성과 사회성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성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각박한 사회에서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현장과 산업체 등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은 강조 되고 있다 [20]. 특히 인성영역 중 규칙이나 관습, 봉사 및 협력 부분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의 하위영역 중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친구관계가 좋은 치위생과 학생들이 교수와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치과의료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대면하는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인성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제도적, 교육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성은 3.42점, 대인관계는 3.46점이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인성과 대인관계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p < .001$). 임상실습 경험이 있을수록 대인관계 중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대한 점수는 낮았다. 인성의 하위영역 중 도덕성과 사회성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r = .674$)를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는 친구관계와 교수관계가 높은 상관관계($r = .606$)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치과의료 현장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과 대인관계 함양에 대해 대학에서도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ang SB, Park ES, Kim GS, Song SJ, Chung YK, Kim YR, Ko MS: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0: 1-38, 2008.
- [2]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Basic plan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harmony of creativity and consideration, 2010.
- [3] Lee YS, Kang HY, Kim SJ: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1: 261-282, 2013.
- [4] Lee MR, Kwag YK: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491-499, 2017. DOI : 10.35873/ajmahs.2017.7.7.046
- [5] Jun MJ, Noh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4): 433-442, 2018. DOI : 10.15207/JKCS.2018.9.4.433
- [6] Cheon HW, Yu MS, Jun MJ: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9-57, 2018. DOI : 10.22156/CS4SMB.2018.8.6.049
- [7] Shin SH: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 1033-1041, 2015.
- [8] Chi EL, Do SL, Lee YS, Park SY, Ju UH, Jin HJ: Personality index development research, Ministry of Education, 2012.
- [9] Son KW, Jeong, CW: A study on the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character and its implica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33: 27-52, 2014.
- [10] Chon KK, Kim KH, Yi JS: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2000.
- [11]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Jang JH: Development of Koer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J Korean Soc Dent Hyg, 13(1): 1-12, 2013.
- [12] Bae YJ, Kwag YK: Importance of character, level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demand of character edu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845-853, 2017. DOI : 10.35873/ajmahs.2017.7.2.079
- [13] Jun MJ, Noh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2018. DOI : 10.15207/JKCS.2018.9.4.433
- [14] Cheon HW, Yu MS, Jun MJ: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ology, 8(6): 49-57, 2018. DOI : 10.22156/CS4SMB.2018.8.6.049
- [15] Kang BW: Analysi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rganization commitment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Bullec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23: 19-28, 2005.
- [16] Han JH, Kim KE: Interpersonal skills caused b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f students majoring in dental hygien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5(6): 746-752, 2015.
- [17] Lee HJ, Kim SJ, Kim YS, Jeon JK, Chang KW: Relationship between job competency, core self-evaluation, and job performance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Oral Health, 37: 161-166, 2013. DOI : 10.11149/jkaoh.2013.37.3.161
- [18] Lee MJ, Nam MH: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553-562, 2018.
- [19] Je NJ, Park MR, Hwa JS: Effects of college students' adjustment, Characte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field practice adaptation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9): 249-258, 2019. DOI : 10.14400/JDC.2019.17.9.249
- [20] Yang SS, Kim HJ, Joo KP: A study of companies' perception on university education and their needs. Korea Res Vocat Educ Train, 9(2): 145-170, 2006.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진행되었음.